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교회 측 기록에서 확인되는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 관련 내용 소개 (1)

### - 신자들의 증언록에 나오는 ‘십이단’ 내용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도문(십계명과 사규(四規, 신자의 네가지 의무 규정) 포함)이었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교리문답과 십이단]이었습니다.(한윤식·박신영 편역,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31~32쪽, 156쪽)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필자는 상교우서 111호(2024년 8월호, 4쪽)와 117호(2025년 2월호, 4쪽 \*111호의 오류 수정)의 지면을 통해 ‘십이단’의 간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십이단(주요 기도)의 변천 과정과 간행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면서 ‘십이단’에 대한 서지학적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열 두 기도』(‘십이단’)<sup>19</sup>와 세 가지 주요 교리<sup>21</sup>를 배우기 전에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해력이 한정되어 있는 60세나 그 이하의 노인의 경우는, ‘진교문답’(進敎問答)<sup>22</sup>만 알아도 된다.

Pour les cas ordinaires, il ne faut baptiser aucun adulte avant qu'il ait appris les Douze Prières (SIP-I-TAN) et les trois premiers catéchismes. Pour les vieillards de soixante ans et même moins, s'ils ont l'intelligence bornée, on n'exigera que le TJIN-KYO-MOUN-TAP.

1887년에 반포된 관례집(지도서)에 언급된 ‘십이단’(Douze Prières, SIP-I-TAN) 관련 내용  
[전거] 한윤식·박신영 편역,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31~32쪽, 156쪽[원문]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일

일이 연구논문에서는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상고우서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1839년(기해) 순교 성인 김아기(아가타)와 ‘십이단’

1839년 천주교 박해에서 살아남은 현석문(가롤로)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1839년 순교자들의 행적 [신자들의 증언 바탕]을 모아 정리했는데, 그 책이 『기해일기』입니다. 1841년경에 처음 작성된 『기해일기』를 바탕으로 기해 순교자 69위가 1925년과 1984년에 시복·시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해일기』에 ‘십이단’이 한 번 언급됩니다.

과부였던 김아기[金阿只, 아가타]는 1836년 음력 9월에 체포되어 3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839년 5월 24일(음력 4월 12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 순교했습니다. 김 아가타는 남편과 친척이 모두 비신자인 데다 집안이 모두 미신을 믿어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신자인 언니의 격려와 훈계를 받아들여 용감하게 미신 관련 물건들을 없애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재능은 부족해서 “십이단 경(經, 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세(聖洗,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기해일기』 26a) 이후 포졸에 붙잡혀 포도청에 끌려갔고, 다시 형조로 이송되어 계속적으로 심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김아기는 기도문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오직 “예수 마리아”만 부르며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옥중에서 동료 신자에게 대세(代洗)를 받았고, 50세의 나이로 아홉 명 신자와 함께 참수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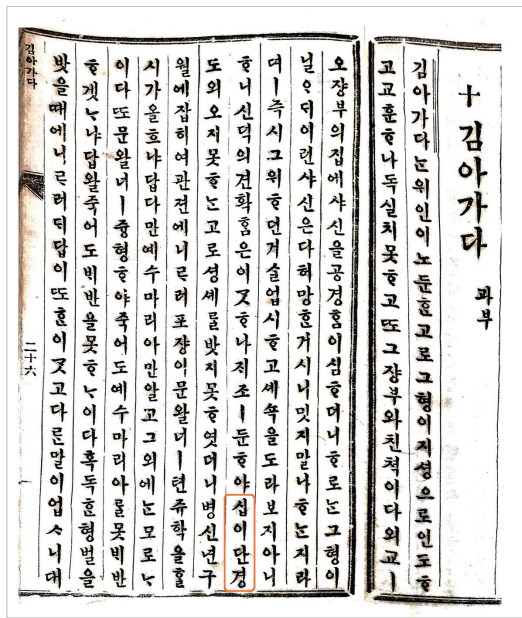
이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받는 대세를 제외한다면 천주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십이단’ 기도문을 반드시 외워야 했습니다. 또한, 1836년 체포 이전에 김아기가 ‘십이단’을 배웠으나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십이단’은 1836년 이전부터 신자들 사이에 전파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1868년 포도청에서 신앙 증거하고 교수 순교한 정의방(타대오) - 정의배 성인의 8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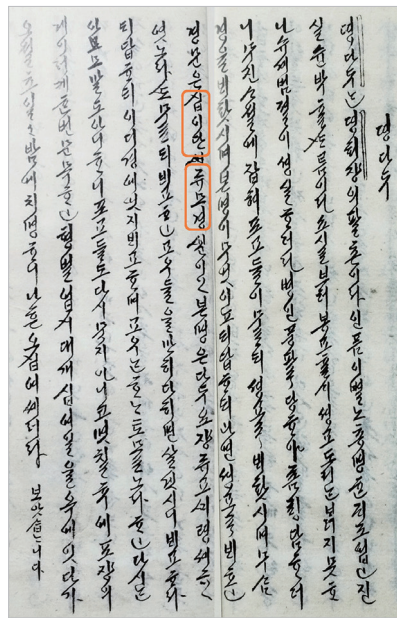
1866년(병인)부터 1873년(계유)까지 지속된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신자들이 붙잡혀 혹독한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배교하고 풀려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여 옥중이나 형장에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24위가 1968년과 1984년에 시복·시성되었습니다.

1866년 3월 11일 새남터에서 참수 순교한 성인 정의배(마르코) 회장의 8촌인 정의방(타대오)도 신앙을 지켜 1868년 6월 20일(음력 5월 1일)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병인치명사적』 5권 19~20쪽 ; 『치명사전』 17a) 정의방은 1866년 박해 당시에는 좀 냉담했는데, 1868년 음력 4월에 포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포교들이 “무슨 경(기도문)을 배웠으며 본명(本名, 세례명)은 무엇이나?”고 묻자, 그는 배운 기도문은 ‘십이단·주모경(主母經,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뿐이고, 본명은 타대오요, 장(張, 베르뇌) 주교에게 영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포교들이 “교우들의 이름을 대면 살 것이니 배교하라”고 했지만, 정의방은 배교할 수 없으며 교우는 한 명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 50여 세의 나이로 옥중 순교했습니다.

관찬 기록에는 정의방(丁義方) 타대오[多斗](51세)가 확인됩니다.(『좌포청등록』 14책 92a, 93a, 무진(1868) 윤4월 17일) 이 기록에는 그가 배운 기도문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정의배를 통해 천주교를 배웠고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기해일기』(25b~26a) - 김아기와 '십이단'



『병인지명사적』(5권 19~20쪽) - 정(의방)과 '십이단'

## 1868년 포도청에서 백지사 순교한 이 아폴로 -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십이단을 배움

이 아폴로는 1866년 공주에서 순교한 삼촌 이 안드레아의 시신을 찾아 안장하고, 충남 서천으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삼촌과 함께 순교하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했고, 잡혀가는 꿈을 꾸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포교가 내려와 그의 조카를 잡아가자 이 아폴로는 스스로 포교에게 나아가 조카를 풀어주고 대신 자신을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포교들은 그 조카를 풀어주고 이 아폴로를 심문했습니다. 본명(세례명)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아폴로'라고 답하고, 영세는 어느 신부에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노(盧, 모방) 신부'라고 답했습니다. 배우기는 얼마나 배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아폴로는 '십이단'과 '문답(問答)'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천 관아로 끌려갔다가 다시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포도청에서도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다가 1868년 7월 8일(음력 5월 19일)에 얼굴에 젖은 종이를 붙여 숨을 끊는 '백지사(白紙死)' 형을 받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33세였습니다.〔『병인지명사적』 17권 12~15쪽〕

이 아폴로는 『좌포청등록』(14책 107b~108a, 무진(1868) 5월 18일)에 나오는 이윤아(李允兒) 아폴로[압호](36세)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이윤아는 서천 태생으로 30여 년 전에 아버지에게 천주교를 배워 대세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의 증언록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 아폴로가 부친에게 대세를 받고 나중[4~7세 무렵] 모방 신부에게 보례(補禮)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입교한 때부터 십이단과 교리문답(성교요리문답)을 배웠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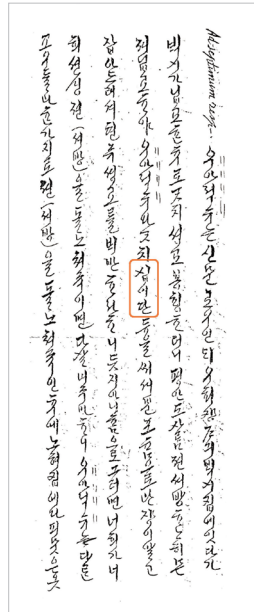
## 1866년 새남터 순교성인 우세영(알렉시오) - 십이단을 필사해서 널리 퍼뜨리다

1866년 순교자들 일부가 시복 대상자가 되어 시복재판[1차 교구 재판(1899~1900년), 2차 교황청 위임 재판(1921~1926년)]을 거쳐 1968년 시복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시복재판에 출석해서 시복대상자와 관

련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그 가운데 ‘십이단’에 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1921년 10월 29일 용소막성당 사제관에서 열린 교황청 위임 시복재판 9회차에 출석한 손 바오로는 새남터 순교자 우세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2차)』 2권 쪽수 불명〕 “우세영은 신입 신자로 자신의 형이 입교한 후에 같이 천주교를 믿었고, 먼저 입교한 평안도 사람 전 서방과 같이 십이단 등을 써서 분포(分布)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관장이 우세영 등 신자들을 잡아들여 배교를 강요했지만, 신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관장은 신자들에게 돌로 쳐서 전 서방을 죽이도록 강요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우세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서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체포된 우세영은 심문을 받을 때 굳건히 신앙을 증거했고, 1866년 3월 11일 새남터에서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정의매와 함께 참수 순교했습니다.

손 바오로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세영 집안에서 우세영이 먼저 입교하고 나중에 부친과 형이 따라서 입교했으며, 신자들에게 맞아 죽은 순교자는 유정률(베드로) 성인입니다. 그는 평양 관아에서 관원의 핍박을 받은 신자들이 때린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우세영이 전 서방[유정률의 오희로 보임]과 같이 ‘십이단’ 기도문을 필사해서 배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866년 이전에 우세영 같은 신자들이 ‘십이단’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복재판 손 바오로 증언 - 우세영과 십이단  
〔전자〕『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2차)』 2권 쪽수 불명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